

교육

시행착오 겪은 ‘세계와 시민’, 달라진 모습으로 새 학기 준비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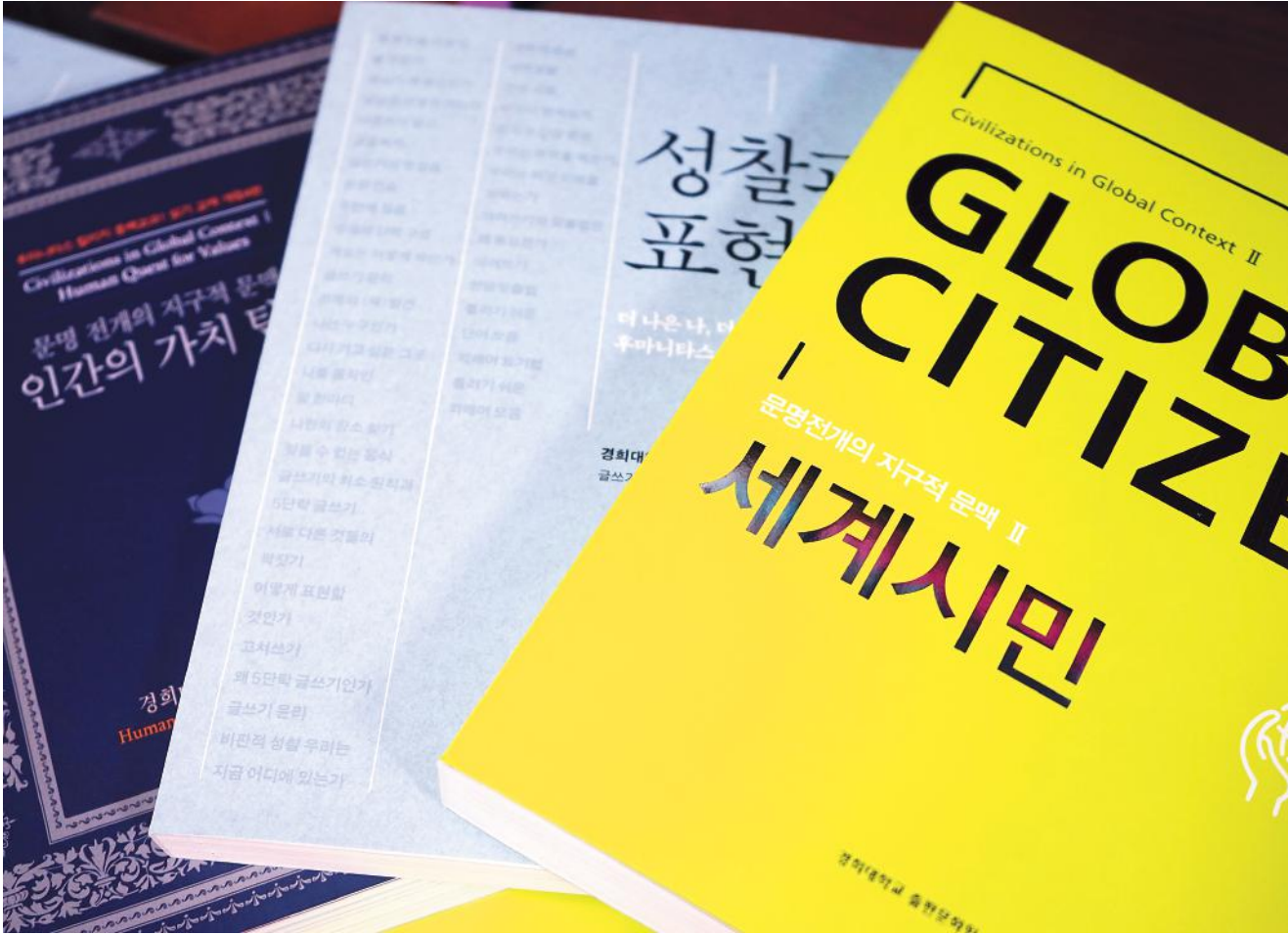
논란과 기대 속에 닳을 올린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재도약 개편안이 시행 두 학기째로 접어든다. 필수과목 수 강인원 축소와 ‘세계와 시민(세시)’ 과목 신설 등 주요 개편사항에 대한 학생, 교수, 학교의 평가를 통해 개편안 시행 첫 학기를 돌아봤다.

후마 재도약 개편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빅뱅에서 문명까지’를 제외한 필수교과 과목의 강좌당 정원 조정과 기존 필수교과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와 ‘시민교육(시교)’을 통합한 세시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서울캠퍼스 후마 이영준 학장은 강좌당 정원을 25명 선에 맞춘 수강인원 조정으로 인한 결과를 개편안 시행 첫 학기 최고의 성과로 꼽았다. 이 학장은 “모든 교수자가 공통적으로 호평하고 있다”면서 “해당 과목들의 강의평가 평균이 5점 가량 상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간의 가치 탐색(인가탐)’ 과목을 강의한 최준석(후마) 교수는 “정원이 많았을 때는 발표나 토론 때 서로 눈치만 보고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라면서 “인원이 적어지니 학생들끼리도 서로 금방 얼굴을 익히고 가까워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쉽게 조성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학기부터 글쓰기 수업인 ‘성찰과 표현’, ‘주제연구’와 ‘대학영어’ 수강인원은 각각 30명, 20명, 20명으로 조정된다. 이 학장은 “후마 대학생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학생 의견을 참고했고 주제연구는 학생-교수 간 개인 지도가 중요한 과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소문을 들은 학생 사이에서 과목 취지와는 반대로 실천 프로젝트 비중이 낮은 수업을 찾아 들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다

신설과목인 세시에 대한 평은 다소 엇갈렸다. 세세시민 교육의 필요성과 시의적절성을 높이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보완과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도 또한 있었다. 세시를 수강한 장우성(철학 2019) 씨는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러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장 씨는 “기후변화나 난민 문제 같은 주제들이 제시됐는데 실천 프로젝트에 반영하려니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해 감을 잡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담당 교수에 따라 수업 진행 방식이나 평가 기준이 다른 것도 불만이었다”면서 “같은 과목임에도 지필 시험 여부도 달랐고 실천 프로젝트는 단순히 계획서만 제출해도 인정해주는 수업도 있었다”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 씨는 또 “이렇다 보니 소문을 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과목 취지와는 반대로 실천 프로젝트 비중이 낮

은 수업을 찾아 들으려 하는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세시를 강의한 교수들의 평가 가운데 맥이 닿는 부분이 있었다. 이강준(후마) 교수는 “신설된 과목이다 보니 교수자들 간에 합의된 교과 운영 지침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학기 중 워크숍 등을 통해 동료 교수자들 사이에 정보와 고민을 나누며 교수별 개성을 살리면서도 과목 동질성을 확보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교수는 “세세시민 교육의 필요성, 과목의 설립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평했다. 그는 “교재에 좋은 글이 많이 실렸지만 그로부터 팀 프로젝트에 필요한 실천의제를 끌어내기는 어려웠다”라며

“가르치는 입장에서 과목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납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시교를 강의했던 교수뿐 아니라 우사세나 인가탐 과목을 강의하던 교수들도 세시를 맡았는데 실천활동 지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강의 별 편차가 두드러진 것 같다”고도 말했다. 결국 1학기 수업을 진행한 뒤 개별적으로 의사를 물어 이번 학기부터는 세시 배정에서 제외된 교수들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교재 개선 필요성도 지적됐다. 정우탁(후마) 교수는 “잘 만든 교재라고 생각하지만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듣는 교양강의의 교재로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주로 유명한 저술로부터 발췌한 글들이 많은데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원문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게 마련이다”라면서 “어디까지나 교양강의인 만큼 세세시민이라는 주제에 관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후마 이 학장은 “제기된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학기는 학생과 교수들이 정확한 교과 내용의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수업이 진행된 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선 이번 학기부터 강의지침을 확실히 하고 실천활동 지도를 돕기 위한 워크북을 도입한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평가방식 편차 문제에 있어서도 담당 교수들에게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학장은 또 “교재에 대한 수정 의견 수렴 또한 꾸준히 진행해 다음 개정 때 반영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대학주보 68기 수습기자 모집

- 모집 대상 : 우리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중 4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 전형 일정
 - 서류 전형 (지원서 작성) : 9월 2일 월요일 ~ 9월 10일 화요일
 - 면접 일시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후 일정 조율
 -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전형 방법
 - 1차 : 서류전형 (입사 지원서 및 필기시험 작성 후 제출)
 - 2차 : 개별 면접 진행
- 접수방법
 -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 팝업창에서 입사 지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제출
- 주요 업무
 - 학내 뉴스 아이템 발제 - 주 1회(월) 주간회의 필참
 - 발제 아이템 기획 및 취재 - 온라인, 지면 기사 작성
- 활동 혜택
 - 장학금 지급 (최대 전액) - 원고료 지급 - 현직 언론인 특강 - 해외취재 기회 제공
-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
 - 대학주보 인스타그램 DM (khunews_jubo)
 - 연락처 : 010-4004-0653 편집장 이후승, 연락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 전화 : 02-961-0095 (서울캠퍼스 편집실), 031-201-3232 (국제캠퍼스 편집실)